

# 전주올덴그린스테이 기자단 '그린트래블러'

### 친환경 여행 실천 시민 참여자 20명 모집... 참여 숙소 '내돈내산' 숙박·후기 작성하면 원고비 지급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주지속협)는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올덴그린스테이 기자단인 '그린트래블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구도 함께 쉬는 숙소'라는 전주올덴그린스테이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여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의 전주지속협은 친환경 여행을 실천할 시민 참여자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주올덴그린스테이 참여 숙박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자단은 필수미션으로 전주올덴그린스테이 참여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숙박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과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친환경 여행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 후기 콘텐츠를 작성해야 한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올덴그린스테이 기자단인 '그린트래블러'를 모집한다.

특히 기자단에게는 친환경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웰컴키프트가 제공된다. 웰컴키프트는 탄소중립 여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로웨이스트 칫솔과

대중교통카드 등이 포함된다. 기자단은 오는 6월 28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GT4WYT7B>)을 통해 상시 접수하며, 블로그 정보 확인

후 선정이 이뤄진다. 선정된 기자단은 해당 기간 내 숙박하고, 2주 이내에 1000자 이상의 블로그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필수미션과 후기 작성을 완료한 기자단에게는 원고비 5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 여행을 계획 중인 관광객에게 친환경 여행 경험과 여행 경비 절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참여자 후기 공유와 설문 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상우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그린트래블러를 통해 숙박시설 탄소중립 실천문화에 앞장서는 전주올덴그린스테이를 알리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전주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이탈리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와 정책 자문 가능 강화를 위해 박용주 재이탈리아 한인회장을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공식 위촉했다.

## 이탈리아 교류 협력 기반 확대

### 박용주 재이탈리아 한인회장, 전주시 해외자문관 위촉

전주시는 이탈리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국제교류 확대와 정책 자문 가능 강화를 위해 박용주 재이탈리아 한인회장을 전주시 해외자문관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제19대 재이탈리아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주 신임 해외자문관은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과 로마 한인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사업가로, 이탈리아 현지에서 30년이 넘게 여행업, 숙박업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에 봉사해 왔다.

시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이탈리아 교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지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로버트 안 LA한인회

을 비롯하여 미국 스페인, 호주 등 4개국 6명의 해외 자문관을 위촉하였으며, 자문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주시 주요 추진사업의 해외 홍보 뿐 아니라, 협력사업 교섭, 해외 도시의 정보 제공·자문 등 시의 글로벌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수미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 자문관 제도는 세계 각지 한인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전주의 강점을 알리고, 도시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 호주,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협력 기반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유럽 지역과의 교류도 더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보건소, 여름철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위해 9월 30일까지 운영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여부를 조기에 인지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 감시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구

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

며, 지난해 총 596건의 집단발생 건수 중 46.6%(278건)이 하절기인 5~9월에 발생했다.

이에 보건소는 집단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유관 부서의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방역기간 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개인위생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의 분실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도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되며,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효자도서관,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효자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누는 5월,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어린이와 부모, 성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세대 간 소통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오는 9일에는 전주시 그림책 활동단체인 '이음' 소속 김소연 강사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 '반짝이는 나를 만나는 시간'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부

모와 함께 '나'의 생각과 특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누비공방 대표인 안진희 강사의 재능기부로 성인을 대상으로 '마음을 잇는 손바느질 북커버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손바느질 기법을 활용해 나만의 패브릭 북커버를 제작하며, 일상 속에서 나눔과 힐링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생애학습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가정의 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